

『시대의 불꽃』을 통해 알게 된 『희망세상』

신문에 소개되는 책 코너에서 우연히 『시대의 불꽃』 시리즈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했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야말로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그분들의 이야기는 부끄러운 제 삶에 새로운 자세를 추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고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찾았더니 월간지 『희망세상』이란 책이 제작되는 걸 알았습니다. 지나 간 호들을 살펴보니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유익한 한국현대사의 민주화운동 내용이 들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볼만한 잡지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에 민주화운동을 특성화한 이런 잡지가 있다는 데 새삼 놀랐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저는 손에 쥐고 볼 수 있는, 자료로서 모아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희망세상』을 구독, 신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과목은 수학이지만 아이들에게 간간히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회영 (교사)

우리 사회로 관심을 넓혀주는 매개체

저는 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민주화니 독재니 이런 말들을 교과서에서 보기는 했지

만 스스로 관심을 가져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리포트를 제출할 일이 생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희망세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인물과 사건, 자료, 미술, 음악, 공연까지 잘 소개되어 있어 리포트 쓰는 데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과 2, 30년 전의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억압과 폭력, 고통이 있었다는 게 그리고 그에 대한 처절한 저항과 엄청난 용기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인지라 리포트를 제출하고 난 뒤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한일회담 관련 문서들이 공개되고 당시 상황들을 들으면서 그리고 일제 하에서 갖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신 분들이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역사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고현재 우리의 삶에 투영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사회참여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우리의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찾은 『희망세상』은 저의 관심을 저 자신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로 넓혀주는 매개체이자 통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소식 전해 주시구요, 수고하세요.

황수련 (대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희망세상』 제작과 관련하여 후기, 제안, 기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엽서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채택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 『희망세상』 담당자 앞  
전 화 : 02-3709-7538 팩 스 : 02-3709-7530 이메일 : stonesok@kdemo.or.kr